수석교사제도 이제 시작이다!

박경미 의원 · 한국 유초중등 수석교사회, 수석교사제 법제화 7주년 大 토론회 열어

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실과 한국 유초중등 수석교사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大세미나실에서 올해로 법제화 7년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도의 비전과 안착 방안에 대한 대 토론회를 가진다. 학교현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석교사제도에 대해 그 간의 공과를 점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는 김영순 교수(인하대 대학원장)의 좌장을 중심으로 박경미 의원 및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에 이어 조상식 교수(동국大 교원정책연구소장) 및 백성혜 교수(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가 수석교사제의 본질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발제강의를 한 후 전문가(교수), 수석교사, 교원단체 대표, 교육청 관계자, 현직 교장 및 교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는 2011년 법제화된 이후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에 걸 맞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수석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제도는 2008년부터 2011까지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2011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 2012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화 당시 정부에서는 매년 1000명씩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거의 선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배정하는 정원도 수석교사에게는 배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 도입 취지에 따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위와 역할도 명확히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석교사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도입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올바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수석교사들은 이번 토론회가 수석교사 정원 및 역할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되어 수석교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바, 이번 토론회가 관련된 제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대다수 교육관계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채식주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동물윤리 이야기

전북교육아카데미 '동물을 위한 윤리학' 29일 도교육청서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을까?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육식과 채식주의를 윤리적 관점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11월 전북교육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날 강사로는 채식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최훈(강원대 교양학부) 교수가 초청됐다. 최 교수는 '동물을 위한 윤리학'을 주제로 관습적 편견인 육식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 문제, 종차별주의 논쟁, 동물의 고통 문제, 동물실험 찬반 논쟁 등 동물 윤리의 주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전북도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거나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최 교수의 저서인 '동물을 위한 윤리학'은 국내 학자가 쓴 최초의 동물 윤리학 저작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사육·육식·동물 실험이 정당화되는지 등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동물 윤리 논쟁을 쉽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상해입신회계금융학원과 실질 교류 강화… 상대 중심 교류 외연 확대 모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중국 금융과 회계 분야 중점 대학인 상해입신회계금융학원(Shanghai Lixin University of Accounting and Finance)과 실질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학은 중국 상해시 관할 공립대학으로, 1928년 개교해 올해 9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전북대와는 2015년 공식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학 당해연(Tang HaiYan) 총장 등 방문단은 지난 21일 전북대를 방문해 학생 교류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속적 교류를 약속했다. 최근 당해연 총장 취임 이후 외연 확장에 나서기 위해 우호 자매대학인 전북대를 찾은 것. 이들은 정성석 대외협력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을 접견해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했고, 전북대 주요 시설과 대학병원, 학생 생활관 등 전북대 주요 시설을 돌아봤다.

전북대가 중국 금융과 회계 분야 중점 대학인 상해입신회계금융학원과 실질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당해연 총장은 "총장 취임 후에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우호 자매대학이자 한국 내 최고 명문 대학인 전북대를 방문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양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석 대외협력부총장은 "그간 상과대학 중심에서 이어져 온 상해입신회계금융학원과의 교류가 향후 수학이나 통계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현재 전북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대학 교원의 박사과정 진학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에도 상해입신회계금융학원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교 간의 실질적인 교류의 폭도 넓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김광혁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 공로 인정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광혁 교수는 최근 제12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김광혁 교수는 전라북도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써 왔다.

김광혁 교수는 "전라북도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아동이 살기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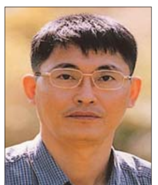
/장은성 기자

"온난화로 인한 기상 위기 극복과 에너지원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해결방향 제시"

전주대 강홍석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교육부 학술 · 연구지원사업 이공분야 우수성과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최근 열린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시상식'에서 전주대 강홍석 교수(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가 이공부문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강홍석 교수는 '이산화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광촉매 반도체에 대한 이론적 디자인' 연구에서 반도체성 층상 물질인 'GeP2'가 태양빛을 흡수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및 산소 등 화학에너지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홍석 교수의 연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 기상 위기 극복과 석유이외의 에너지원의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평했다.



이와 관련된 강 교수의 연구 논문은 이미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2017년 유명 국제 과학 저널인 'JMCA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의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된 바가 있다. 한편, 강 교수는 2008년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에서 우수 연구자 1명에게 수여하는 입재물리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또, 강 교수의 또 다른 논문도 2018년, 'JMCC(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의 표지 논문에 선정된 바 있다. 강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신소재 물질 'TeSe2'가 기계적 작용만으로 각각 특징적 스핀편향 현상을 갖는 세 가지 거시적 결정상 간에 서로 쉽게 변환될 수 있음을 검증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상식에서 지난해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6,500여 과제 중 우수성과 41건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인문사회 부문 23건, 한국학 부문 4건, 이공 부문 14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초등교사들 우리학교 교육과정 세운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부터 1박2일간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19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 완주, 김제 17개 초등학교 교원과 초등교육 전문직원 29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석 교원들은 2018학년도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2019학년도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주덕일초 노영윤 교감이 강사로 나서 '아이들이 행복한 우리학교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하며 '2018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돌아보기'와 '2019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세우기' 분임별 강의와 토의도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학교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올해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 공유와 소통을 통해 학생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